

노인가구의 주거현황 DB 구축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DB Construction about the Elderly Household

박 남 희*

Park, Nam-Hee

최 재 순*

Choi,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 of housing DB construction about the elderly people. Documentary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elderly household is increasing very rapidly. Especially they consist of single or coupled family. They want to live in detached house and aging in place. But social welfare system is not enough to satisfy their needs. So, it is need that systematic social support or welfare system to reflect their needs. For example,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for them are prepared that their data base system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Keywords : elderly hosedhold, housing, DB

주요어 : 노인가구,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2006.12.31기준)는 48,991,779명이고 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등에 이어 인천의 순으로 인구가 많다. 우리나라 65세 전체 노인중 33%가 노인 1인이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가구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2007년(7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0천명으로 총인구의 9.9%를 차지(통계청, 200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른 노인가구 노인에 대한 일반 현황과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고령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노인주거복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준비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이러한 일환으로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의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노인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주거 DB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자료 해석상의 제한

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활용한 내용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이다.

II. 노인가구의 특성

1. 노인가구

일반적으로 노인가구는 노인 1세대 가구로 노인¹⁾ 1인 혹은 노인과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뜻하는데 부부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한국주거학회, 2005).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29.9%가 3세대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이 1세대가구(28.7%), 2세대가구(23.9%)의 순이며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세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은 1998년도(약 48%)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1990년 100명당 9명에서 2000년에는 100명당 16명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희원(주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겸임교수

** 정희원(교신저자).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 연구는 2008년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결과의 일부임

1)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함. 즉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을 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 고령자는 55세이상,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를 말함.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90	1997	2000	2007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2,869	45,954	47,008	48,456	48,875	49,326	48,635
0~14세	12,951	10,974	10,233	9,911	8,734	7,907	6,118	5,525
15~64세	23,717	29,701	32,791	33,702	34,912	35,611	35,506	31,299
65세이상	1,456	2,195	2,929	3,395	4,810	5,357	7,701	11,8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5.6	22.3	21.1	18.0	16.2	12.4	11.4
15~64세	62.2	69.3	71.4	71.7	72.0	72.9	72.0	64.4
65세이상	3.8	5.1	6.4	7.2	9.9	11.0	15.6	24.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표 2>는 노인가구의 자녀와의 동거 및 별거에 따른 세대구성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노인 1인 가구 및 1세대가구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의 비율이 1975년 7.0%에서 2005년에는 51.2%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상회한다. 이처럼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혼자녀와 동거하던 가구가 자녀를 출가시킨 후 노인 혼자 살게 되었거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의 확대로 노인 부양기능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주거학회, 2005).

표 2. 노인가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단위:%)

구분		1975년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노인단독 가구	1인가구	7.0	19.7	8.9	13.3	16.2	18.2
	1세대가구			16.9	23.3	28.7	33.0
2세대 가구		6.8	11.2	23.4	23.0	23.9	24.9
3세대 가구		78.2	69.1	47.6	38.4	29.9	22.9
4세대 이상 가구				2.0	1.3	0.9	0.5
비혈연 가구		8.0	-	0.7	0.8	0.4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1975~2005까지 각 해당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2. 노인가구의 지역사회 거주기간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해당 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39.2%, 3년 미만이 16.3%, 10~15년 거주한 비율이 14.5%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거주한 비율만 보면 59.4%로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의 현주거지 거주 이유를 보면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서(39.4%), 옛날부터 살아와서(34.0%) 순으로 나타났는데 현재는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현 주거에 거주하고 있으나 옛날부터 살아온 지역 애착심도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되면 수입이 늘지는 않고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감안해볼 때 현재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고 또 옛날부터 살아온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의 특성상 앞으로도 현 주거지에서의 거주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주거지에서의 주거만족도는 44.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역사회 거주기간

기간	%
3년 미만	16.3
3~5년(%)	12.5
6~9년(%)	11.8
10~15년(%)	14.5
16~19년(%)	5.7
20년 이상	39.2
평균거주년수(년)	13.6

자료 : 통계청, 2004 보고서

3. 노인가구 특성 관련 선행연구

이러한 노인 단독가구의 특성을 정리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이영자, 김태현(1999)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단독가구 노인(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 3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결과 단독가구에는 여자노인이 훨씬 더 많았으며 연령은 60대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 총자녀수는 3명 이하인 노인이 많았다. 단독가구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직접 일

을 해서 번다가 23.7%, 재산소득, 연금이나 퇴직금이 41.9%, 생활보호대상자가 0.8%, 자녀가 대준다가 33.6%였으며, 가계소득은 50만원 이하가 26.0%, 51~100만원이 37.8%, 111~140만원 10.4%, 141만원 이상이 25.8%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은 어렵다가 18.0%, 보통이다 52.9%, 넉넉하다가 29.2%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5.3%, 보통이다 21.6%, 건강치 않다가 33.1%였다. 이들 노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우울감의 전반적인 정도를 조사한 결과 먼저 스트레스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이 5점 척도 중 2.55로 약간 낮은 편이었고, 영역별로 보면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3.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족관계(2.72), 주거환경(2.25), 경제문제(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명희(1999)의 충북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391명을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과 단독가구 노인의 여가생활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은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동거노인은 무학이 많고 단독가구 노인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동거노인은 건강이 보통인데 단독가구 노인은 좋거나 나쁘거나 동거가구는 무배우자, 단독가구는 유배우자 비율이 높고, 단독가구 노인이 동거노인보다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화투하기, 장기바둑 두기, 시장백화점 가기 등 주로 오락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규(2000)의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단독가구의 거주형태는 부부중심의 가구가 독거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단독가구로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단독가구가 주거이동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 주거환경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1주택당 평균 가구수는 1.6 가구이며 평균 방수는 2.4개, 평균 주택규모는 24평, 평균 건축년수는 10.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은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주거소유비율과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주택에 대한 정서성이나 이웃관계에 대한 정서성이 높은 반면 주택의 현대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주택의 물리적 특성이나 상태의 노후화가 예상되었다.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소득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주거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주거비용의 과다, 낮은 설비수준, 소음공해, 수납공간의 부족, 미끄러운 바닥재료 등의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소유형태, 주택형, 주거규모, 건축년한, 욕실 설비 등의 변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주거선택시 외부사회와의 접촉보다는 자녀나 자연과의 친밀한 접촉을, 주택의 설비수준이나 주택의 규모와 같은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는 거주지역이

나 소유형태와 같은 주거특성 관련 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희망 내용도 노후부분의 수리나 부엌 및 화장실의 개조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경옥(2003)은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노인단독가구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독신가구가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단독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구 형태의 하나로써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조사하고 특히 노인인구 구성이나 성비를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노인이 독신가구 형태로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III. 노인가구 주거 DB 구축 방안

1. 노인가구 조사 선행연구

노인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4)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노인의 풍요로운 주거환경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과 법제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령자 전용의 주택공급과 주택개조정책 도입, 고령자 주거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고령자 주택 설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2005)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 연구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표준화 설정 기준 및 노인주거 설계 지침 및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시설의 공간구성 및 개조사례를 제시하여 국내 각종 주거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5)은 10대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이르기까지의 2,000명을 대상으로 동적 신체 특성 및 치수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를 DB로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및 특화계층의 동적 치수에 대한 인체 측정치의 DB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의 특성을 살린 44개 항목을 조사하여 고령 사회에 대비한 DB 구축을 시도하였다.

주택도시연구원(2006)은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자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자 및 고령 진입층의 주거욕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 주거정책의 장기 로드맵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정책 방향과 그들의 주거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를 위한 최소 안전기준 설정, 고령자를 위한 정보 제공센터 설립 등의 단기과제와 고령 임차가구를 위한 주거대책 수립 및 주택개조지원체제 구축과 같은 장기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이지숙(2007)은 노인주택 가구 디자인의 지침 비교를 통해 침실, 거실, 부엌, 식당 등에 놓이는 가구의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나타난 지침간이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신화경, 이준민(2008)은 노인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노인의 주거환경에 관련된 실내외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항목을 추출하여 각 공간별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에 따라 평가틀을 구성하였다.

조성희, 전은정(2008)은 노인의 노후 상황을 이해하고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령기 단계를 제안하고 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특성을 인구학적으로 파악하였다. 즉 노인가구의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고령화에 따른 구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고령기 단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2. 노인가구 조사 항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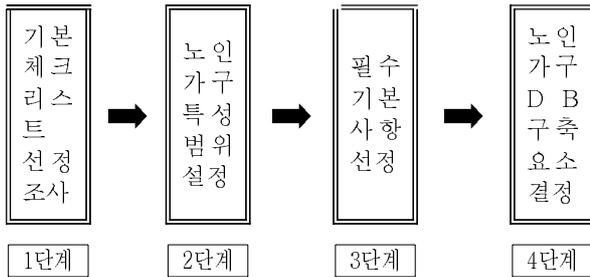
노인가구의 주거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가구의 실태

를 조사한 연구의 조사항목을 분석하였다. 1단계로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연구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분석하고 2단계로 일반사항과 주거현황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단계로는 이 가운데 필수 기본 사항을 선정하였고, 4단계로는 선정된 요소와 기타 사항을 검토하여 노인가구의 DB 구축 요소를 결정하였다. 4단계로 선정된 DB 요소는 3단계에서 선정된 필수 요소의 공통사항과 공통 요소가 아니어도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최종 DB 요소를 선정하였다.

표 4. 노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 요소

연구자	조사내용	추출요소		필수요소	DB 요소
		일반사항	주거 현황		
주택도시연구원 (2004)	노인의 주택내 안전사고 조사(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주택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 주거유형, 건강상태, 주택개조여부,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개조여부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주택도시연구원 (2006)	일반사항-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어린 시절 보낸 곳/가족사항 - 동거자, 자녀집과의 거리/경제상태 - 소득, 자산, 생활비/건강상태 - 건강상태/주거상태 -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년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 희망하는 주거환경,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살고 싶은 거주형태 - 건강한 경우, 건강이 나빠진 경우, 혼자 되었을 때/개조에 관한 사항 - 개조의향, 개조희망공간/노후생활 - 노후시작시기, 자녀와의 동거 희망 여부/결혼상태,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 주거유형, 건강상태, 주택개조여부,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생활비,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가격, 임대료, 건축년도, 주택 거주년수, 안전사고 유무, 주택개조경험	주택 거주년수성별, 연령, 학력, 동거상태, 소득, 자산, 건강상태, 가족구성,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여부	일반사항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주거현황 :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공간사용현황, 주택개조여부,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주택의 물리적 수준, 주택건축년도, 거주지역, 이사계획 여부 및 이유, 희망주택유형, 희망주택규모, 희망거주지역
표준과학연구원 (2005)	연령, 성별, 주로 쓰는 손, 출산 여부,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출생지, 가장 오래 산 곳, 신발크기, 직업, 여가시간, 몸무게, 키, 인체치수	연령, 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연령, 성별, 동거형태, 건강상태, 질환, 학력	
한국주거학회 (2005)	노인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독거 혹은 부부가구로 사는 이유,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생활지, 주수입원,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주거유형,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공간별생활행위, 신체치수, 주택개조 내용 및 필요성 인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독거 혹은 부부가구로 사는 이유,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생활지, 주수입원, 신체치수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주거유형, 주택가격,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안전사고 장소 및 유형, 공간별생활행위, 주택개조 내용 및 필요성 인식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질환종류,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주수입원 입주시기,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현주거유형, 주택규모, 주택사용내용, 공간구성형태	
조성희, 전은정 (2009)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거주기간, 가구원수, 자녀 동거여부,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총조사	일반 -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동거가족, 가구원수	주택 - 주택유형, 점유형태, 편의시설, 건축년도, 방수, 주택규모, 건축년도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상태, 주택유형, 점유형태, 편의시설, 건축년도	

노인가구의 DB 구축을 위한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선정되었다. 즉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결혼상태, 가족구성, 건강상태, 질환유무, 질환종류, 동거상태, 불편한 행동, 기본 및 도구활용 일상생활활동 정도 등이 선정되었다. 주거현황 요소로는 거주년수, 주택소유형태, 주거유형, 주택규모, 공간사용현황, 주택개조여부,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현재주택 계속 거주 여부 및 이유, 주택의 물리적 수준, 주택건축년도 등이 선정되었다. 노인가구의 DB 구축 요소 선정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인가구 DB 구축 요소 선정 과정

IV. 결론 및 제언

첫째, 노인가구에 대한 인구 변화 실태 파악을 통해 노인 현황의 일부라도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노인가구 가운데 1인가구와 부부세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노인은 현재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aging on place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 구축의 중요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DB는 일반사항과 주거현황에 맞게 요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은 aging in place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복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3. 김정석(2007).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변화와 전망.
4. 송하승(2007).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5. 신화경, 이준민(2009). 노인주거환경 평가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6. 이영자, 김태현, 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한국노년학. 1999. 19.3.
7. 이지숙(2007). 노인주택 가구 디자인의 지킴 비교. 한

- 국생활과학회지. 16(6).
8. 조성희, 전은정(2009). 노인주거계획을 위한 노인가구의 고령기 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9. 주택도시연구원(2004).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
10. 주택도시연구원(2006).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1. 조경옥(2003). 고령화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12. 조명희(1999). 자녀 동거노인과 단독가구 노인의 여가생활 비교 분석.
13. 최명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9). 2000.
14.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2005).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치수 표준화 연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5. 한국주거학회(2005). 노인가구의 자립생활 증진을 위한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05). 고령자 등 특화계층 동적치수조사사업
17. 통계청(2004). 보고서
18. 통계청(2007). 고령자 통계
19. 통계청(1995~2005). 각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20. 통계청. www.kostat.go.kr